

‘천년의 신비’ 강진청자축제 21일 개막

10일간 청자·미술 결합 다양한 체험
키즈존·어린이 브랜드 뮤지컬 공연
21~22일 트로트 가수 흥겨운 무대

제54회 강진청자축제가 오는 21일부터 3월 2일까지 10일간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박물관 일원에서 열린다.

‘흙과 불,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를 주제로,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올해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청자와 미술을 결합한 창의적인 체험 프로그램이다.

청자 물레 성형 체험, 청자 색칠놀이, 샌딩아트, 청자 머그컵 만들기, 청자 도판 체험 등 ‘흙’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이 마련돼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에어바운스 키즈존을 비롯해 미술 포일 아트, 선개채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미술 키즈존, 청자 입체 퍼즐·디퓨·샌딩아트·오라실 체험 등이 준비된 놀이터 키즈존 등 3종의 키즈존과 전국 어린이 민화 그리기 대회가 진행된다. 특히 헬로 카봇(22일), 신비아파트(28일) 등 인기 어린이 브랜드 뮤지컬 공연이 마련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호응이 기대된다.

전통의 맥을 잇는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전국 물레 성형 경진대회와 화목가마 불지피기 행사는 강진청자축제만의 정체성을 보여주며, 청자골 불명검포와 화목소원 태우기 등 ‘불’을 활용한 힐링 프로그램은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제54회 강진청자축제가 오는 21일부터 10일간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박물관 일원에서 열린다. 지난 청자축제 태토밧기 모습. <강진군 제공>

선사할 예정이다.

개막일인 21일 오후 6시에는 축제장 주무대에서 화려한 개막 공연이 펼쳐진다.

트로트 가수 김수찬, 미스김, 서지오를 비롯해 ‘현역가왕2’ 최수호, ‘미스터트롯’ 진 안성훈이 출연해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이튿날인 22일에는 ‘미스터트롯3’ 선 손빈아와 함께하는 강진노래가요제 우리동네스타가 개최된다.

이 외에도 청자골 족욕 체험, 강진 가족사진관, 자전거 솜사탕 만들기, 청자 도판 체험, 청자 굿즈 및 유등 전시, 청자 무게 맞추기, 웃음 참기 대회 등 남녀노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푸드트럭·음식 부스가 운영돼 축제장을 찾는 관

광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키며, 유채꽃과 흥매화로 조성된 포토존은 도내 축제 중 가장 이른 봄을 알리는 명소가 될 전망이다.

또 축제 기간 ‘강진 누구나 반값여행’정책과 연계해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인다. 관외 관광객은 여행 경비 중 최대 20만원까지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자원받을 수 있으며, 간편한 사전 신청과 사후 정산 절차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강진반값여행 홈페이지(gangjintour.com)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강진원 강진군은 “청자의 전통과 창의적인 체험이 어우러진 이번 축제를 ‘강진 누구나 반값여행’과 함께 특별하게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간판부터 바꾼다”...나주 방문의 해 준비 시동

도심 경관·상권 경쟁력 제고

나주시가 ‘2026 나주방문의 해’ 운영을 앞두고 노후화된 간판 정비를 통해 도시 이미지 개선과 함께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나주시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후·불량 간판을 친환경 발광다이오드(LED) 간판으로 교체하는 ‘좋은 간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총 26개 업소를 대상으로 4000만원 규모로 추진하며, 업소당 간판 철거·설치 비용의 50%,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간판 시공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광고 업체로 제한한다.

또 사업 완료 업소가운데 노후도가 심각한 업소

는 추가로 선정해 외벽 디자인 도색 개선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나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며 접수 기간은 3월 20일까지다.

신청은 나주시 도시과 경관디자인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절차와 구비 서류는 나주시 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간판 노후도와 경관 개선 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현장 확인을 거쳐 선정하며 결과는 4월께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좋은 간판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장성군, 치매 환자·가족 ‘안심택시 송영서비스’

장성군이 치매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안심택시 송영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치매안심센터를 오갈 때 무료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해 4년째 추진하고 있다. 치매 조기 검진 대상 주민도 이용할 수 있으며, 쉽나 가족교실 등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일정에 맞춰 운행 시간을 조정한다. 서비스는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장성군은 단순한 무료 교통수단 제공을 넘어 택시기사들이 치매 증상을 이해하고, 안전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치매 파트너’ 교육도 시행한다.

서비스 이용 안내는 장성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난 4일 장성군청에서 열린 ‘치매안심택시 송영 서비스 협약식’에서 김한중 장성군수와 택시회사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장성군 제공>

로 문의하면 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동수단 때문에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환경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옛 장흥교도소 ‘빠빠용Zip’ K-콘텐츠 새로운 명소 부상

주요 드라마·영화 촬영지로 주목
스토리 체험형 공간 운영도 인기

옛 장흥교도소 문화예술 복합공간 ‘빠빠용Zip(빠빠용집)’이 최근 국내 주요 드라마와 영화의 촬영지로 주목받으며 K-콘텐츠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빠빠용Zip’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실물 교도소 시설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공간으로, 제작진과 배우들 사이에서 압도적인 현실감과 몰입감을 제공한다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장흥군에 따르면 올해 1월 한 달간 총 7개의 촬영팀이 현장 촬영과 사전 답사를 진행했다.

최근에는 화제의 중심에 있는 드라마 ▲경도를 기다리며 ▲자백의 대가 ▲오늘부터 인간입니다만 ▲조각도시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이곳을 배경으로 촬영을 마쳤거나 진행하고 있다. 특히 장흥군은 단순히 촬영 장소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작품 종영 후에도 관람객들이 극 중 장면과 감동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스토리 체험형 공간’으로



빠빠용Zip 주관으로 관람객을 대상으로 영화 ‘오징어 게임’ 콘텐츠 페어가 열리고 있다. <장흥군 제공>

운영하며 타 촬영지와 차별성을 꾀하고 있다.

또 시설 내 마련된 ‘교정 역사 전시관’은 옛 교도소의 생생한 흔적을 함께 전달하며 교육적 가치와 문화적 재미를 동시에 선사하고 있다.

장흥군은 앞으로도 촬영 유치 단계를 넘어, 콘텐츠IP와 연계한 지역 관광 활성화 모델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류 민 장흥군 문화관광실 주무관은 “빠빠용Zip은 촬영을 위한 일시적인 공간을 넘어, 촬영 이후에도 이야기가 계속해서 살아 숨 쉬는 장소”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K-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동시에 관람객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선사하는 지역 대표 문화공간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담양군, 고향사랑기금 ‘마을빨래방 시범사업

담양 고서면이 고향사랑기금 공모사업으로 설치한 마을공동빨래방이 문을 열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마을공동빨래방은 전남도와 담양군이 공동으로 지원한 사업으로 대형 세탁이 어려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돌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성된 생활밀착형 복지시설이다.

고서면은 노인인구가 전체의 46%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 많다. 이러한 지역 여건을 고려해 조성된 마을공동빨래방은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의 생활 편



의 향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고서면 주민자치회와 적십자봉사회가 협력 운영하며,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개선점을 보완 후 정식 개소할 예정이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6년 2월호

2026년 1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Shall we donate?

특집
일상에
부리내린 기부

- 기부는 이벤트가 아닌 나누고 싶은 마음
- 따뜻한 빛으로 퍼지는 스타들의 기부
- 고향을 바꾸는 기쁨, 고향사랑기부

남도 체험로드

강진

다산의 향기
강진만의 생태
희망 움트는 남도땅

해외문화기행

컬른 루트비히 미술관

문화 트렌드

새해 복을 추구하는 그림 '민화'
아이 원할 땀 꽃과 새, 수험생 방엔 쏘가리

복합문화공간, 도시미레가 되다

비엔나MQ
바로크와 현대가 함께
빛나는 뮤지엄 지구

해외 문화 화제
글로벌 현대미술의 현장
2025 상하이 아트위크

문학 화제
2026 광주일보
신춘문에 당선자 3인
인터뷰

2026 신춘문에 당선자 개황

예향과 함께하는 남도투어

겨울의 끝자락
느리게 걷는 남도

공간의 재발견

지친 이들을
팔 벌려 환대하는
위로의 수도원

나주 남평 '글라레 수도원'

조인호의 키워드로 읽는 광주 전남 미술사

추상 비구상 회화의 개척
강용운·양수아